<반짝반짝 한국어> 3 종이금융의 퇴장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5 episode 3.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Stefano 씨, 근데 오늘 왜 15 분 늦게 왔어요? 나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M: 미안해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요. 점심 시간 때문인지 은행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거든요.

F: 아, 그랬구나. 요즘에는 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은행에 꼭 가야 하는 일이 있었나 보네요.

M: 네,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요. 그런데 종이 통장은 주지도 않더라고요.

F: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종이 통장 받아도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M: 그렇긴 하죠. 그래도 난 뭔가 아날로그한 게 좋던데..

F: 그러면 요즘 세상 살기 힘들어요. 금융계에서는 종이로 거래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M: 종이 거래가 없어진다고요? 그럼 화폐는요?! 말도 안 돼요.

F: Stefano 씨, 요즘 상황이 어떤지 좀 아셨야겠네!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종이금융거래하고 관련되는 기사를 하나 읽어 볼까요?

M: 좋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꼭 필요한 기사겠네요.

F: 네, 그럴 것 같네요.

M: 그럼 기사문을 보기 전에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표현이 있으면 말해 주시겠습니까?

F: 물론이죠. 금융과 관련된 말들이라 좀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국민주 공모가 처음 이뤄졌던 해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늦은 편에 속하다, 눈이 핑핑 돌다, 걸음마 단계, 종이 금융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변화에 어지럼증을 느끼다, 두통거리, 굳이 말할 나위도 없다.'는 나중에 활용하기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M: 아, 네. 근데 다른 것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다?

F: 국민주요? Stefano 씨, 주식 알죠?

M: 네, 주식 알죠.

F: 주식 중에서 나라가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국민의 경제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크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국민에게 사도록 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민주예요.

M: 아! national stock!

F: 네, national stock. 그럼 앞에서 말했던 표현에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N: 1988 년은 한국 역사상 국민주 공모가 처음 이뤄졌던 해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증권을 대중화하고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며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었습니다. 국민주 1 호가 된 포항제철의 공모에는 321 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종이증권이 정부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침으로 곧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처지라고 합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종이증권은 없어지고 증권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유통이 이뤄집니다.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 개국 중 31 개국이 이미 도입한 터라 한국은 늦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요즘 국제 금융계의 디지털화는 눈이 핑핑 돌 정도입니다. 덴마크는 최근 주유소와 옷가게, 식당에서 현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스웨덴도 버스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현금 취급을 중단하고 전자결제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국내에서도 모바일 통장지갑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종이통장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어제는 하나카드가 처음으로 실물 없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금 없는 경제로의 진화인 셈입니다.

이는 실물이 오고가던 금융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모바일뱅킹과 전자지갑으로 상징되는 금융계의 디지털혁명 때문입니다. 최대 장점은 편리성이지만 현금이 동반되지 않는 거래 덕분에 보안이나 관리 비용은 줄 것이고, 거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과거 종이가 그랬던 것처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써오던 실물의 퇴장이 그렇지 않아도 빠른 변화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세대들에게는 두통거리라는 점입니다. 변화가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나이 든 군에 속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F: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때요? 기사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나요? Stefano 씨, 이해 못 한 거 아니죠?

M: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금융 거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F: 맞습니다. 중심 내용을 잘 파악했네요. 그럼 이번에는 기사를 부분 부분 들으면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M: 네, 좋아요.

N: 1988 년은 한국 역사상 국민주 공모가 처음 이뤄졌던 해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증권을 대중화하고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며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었습니다. 국민주 1 호가 된 포항제철의 공모에는 321 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종이증권이 정부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침으로 곧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처지라고 합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종이증권은 없어지고 증권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유통이 이뤄집니다.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 개국 중 31 개국이 이미 도입한 터라 한국은 늦은 편에 속합니다.

F: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들어 볼게요. Stefano 씨, 여기까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M: 국민주가 시작되었던 1988 년을 떠올리면서 그런 종이증권이 없어질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F: 네, 맞아요. 종이로 거래되던 증권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듣기 전에 말한 표현 중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있었죠? 뒤안길 즉 뒷길, 보이지 않는 길로 '사라지다', '퇴장하다'라는 의미죠. 결국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전자 증권 시대가 오면서 종이 증권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고요.

M: 'To fade away in the mists of history', 뒤안길은 골목길, 큰길, 이런 길 중에 하나인 거네요. 오케이. 이 표현 마음에 드는데요.

F: 그럼 기사를 계속 들어 볼까요?

M: 네, 좋아요.

N: 사실 요즘 국제 금융계의 디지털화는 눈이 핑핑 돌 정도입니다. 덴마크는 최근 주유소와 옷가게, 식당에서 현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스웨덴도 버스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현금 취급을 중단하고 전자결제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국내에서도 모바일 통장지갑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종이통장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어제는 하나카드가 처음으로 실물 없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금 없는 경제로의 진화인 셈입니다.

F: Stefano 씨, 두번 째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M: 세계적으로 금융계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요. 한국도 그렇고요.

F: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M: 중요한 표현이요? 중요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찾으면 안 될까요?

F: 됩니다. 됩니다.

M: 저는 처음 나왔던 눈이 핑핑 돌다, 'to feel dizzy' 가 중요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금융계의 디지털화가 빨리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 잖아요. 눈이 핑핑 돌 정도니까요.

F: 맞아요. '눈이 핑핑 돌다'는 무언가가 정신없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정신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계의 변화에 일반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는 말인 거죠. 그럼 한국도 금융계가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디지털화되었을까요?

M: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추세 정도이고, 모바일 신용 카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아,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스마트폰으로 카드처럼 결제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던 거군요?

F: 맞아요. 그런 장면,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한 말이 '걸음마 단계이다'라는 말이에요. 걸음마, 걸음마

M: 에? 갑자기 이게 무슨 노래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뭐예요?

F: 이 걸음마란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 걷는 것을 배울 때 한발 한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아기가 걸음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걸음마, 걸음마

M: 걸음마, 걸음마. 네, 밤에 자다가도 생각날 것 같아요.

F: 자, 그럼 이제는 끝까지 다 들어 봅시다.

N: 이는 실물이 오고 가던 금융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모바일뱅킹과 전자지갑으로 상징되는 금융계의 디지털혁명 때문입니다. 최대 장점은 편리성이지만 현금이 동

반되지 않는 거래 덕분에 보안이나 관리 비용은 줄 것이고, 거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과거 종이가 그랬던 것처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써오던 실물의 퇴장은 그렇지 않아도 빠른 변화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세대들에게는 두통거리라는 점입니다. 변화가 빠르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나이 든 군에 속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F: 여러분, 잘 들었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죠?

M: 이 부분에서는 디지털 혁명으로 변화되는 금융계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말하고 있네요.

F: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온 '금융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앞에서 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둘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표현으로 '어지럼증을 느끼다, 두통거리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영향일까요?

M.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F: 맞아요. 이런 빠른 변화가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머리 아픈 일이라는 이야깁니다. 근데 Stefano 씨,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이 디지털화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겠어요?

M: 왜 이러세요? 저는 아직 젊다고요. 말할 나위 없이 잘 적응할 테니 걱정 마세요.

F: 오~ 알겠어요. 그럼 오늘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사 내용은 한국에서 종이 증권이 곧 없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계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 금융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기사는 어떠셨어요? 금융과 관련된 것이라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라서 편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시사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F: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기사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M: The piece of news from above is an adapted excerpt from the article '종이금융의 퇴장' that appeared on the Kyunghyang Shinmun on May the 21st 2015.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

© 2015 Gilddong KFL All right reserved.

CC BY NC ND